

쌀값 폭락...대풍에도 농심은 ‘쌀쌀’



20일 담양군 수북면의 논에서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다. 전남 들녘에 풍년이 들었지만 쌀값 폭락 우려로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생산량 400만t 넘는데 재고량 175만t...수매량 줄이고 가격 낮춰

“정부가 대책 내나라” 광주·전남 농민 1500여명 상경 시위 준비

3년 연속 풍년이 들었지만 쌀값 폭락이 우려되면서 광주·전남 농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도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풍이 들었지만 해마다 쌀 소비량이 줄고, 그나마 재고를 해결해주던 대북 쌀 자원이 중단된 탓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해 별다른 자연재해가 없고 9월 일조량이 좋아 풍년이 들면서 쌀 생산량은 연간 400만t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계속되는 풍년에도 쌀이 남아돌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정부의 쌀 재고량은 175만t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133만t보다 42만t이 많다. 농협 종합미곡처리장(RPC)가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도 30만t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62.9kg을 기록하는 등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내년이면 60kg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0.7kg였던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 약 18kg이 감소했다. 10년간 쌀 소비가 22% 줄어든 것이다.

특히 쌀 과잉생산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민들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올해 RPC 쌀

수매 선지급금을 40kg 기준 4만5000원으로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해(5만2000원) 수매가보다 7000원가량 떨어진 가격이다. 늘어난 재고 탓에 수매량도 36만t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쌀 수매 선지급금은 시장 가격의 90~93% 수준에서 책정되며 수확과 수매가 진행된 뒤 시장 가격이 맞게 다시 책정되지만 올해는 시장 가격 자체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김재욱 의장은 “올 예상 쌀 생산량 400만t 가운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쌀만 수매하고, 가격도 4만5000원으로 책정하면 쌀의 시장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꼴”이라며 “수매량을 100만t 수준으로 늘리고 가격도 지난

해 수준인 5만200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전남 농민 1500여명은 오는 22일 상경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관하는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5000여명의 농민이 서울 대학로와 종로 등을 가두행진하며 ▲수확기 쌀값 폭락 대책 마련 ▲밥쌀용 쌀 수입 반대 ▲대기업 농업 진출 반대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정치권도 쌀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쌀값이 10년간 계속 떨어져 20년 전 쌀값이 됐다”며 “예상된 쌀값 파동을 막지 못하고 고통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가고 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옛 도청건물 해법 모색 ‘광주대책위’ 27일 출범

‘5·18 상징 건물’ 공감대 형성

광주공동체 전체 차원 문제 해결

윤장현 시장 공동대표 맡을 듯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건물 보존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 시민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광주일보 9월 12일자 1면)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관계 인사 등이 대거 참여하는 기성 ‘광주대책위’가 오는 27일께 출범한다.

윤장현 광주시장

이 옛 전남도청 건물 보존을 촉구하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자회)의 뜻에 공감하고 광주지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대책위를 꾸리기로 해 향후 활동과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옛 도청 보존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됐다.

회의 참가자들은 옛 전남도청이 5·18의

상징과도 같다는 점에 주목, 5월단체와 일부 시민단체가 앞장서 옛 도청 보존을 촉구하기보다 광주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뤄 이날 27일 대책위를 공식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옛 전남도청 보존 요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광주공동체의 결집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윤장현 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이런 뜻에 공감하고 대책기구에 참여기로 5월단체 측에 뜻을 전해왔으며, 윤 시장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윤 시장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5·18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의 총탄 흔적을 보존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5월단체는 옛 도청 본관과 부속 건물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역사 현장 원형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14일째 전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018년 3월에 ‘첫 삽’

운천저수지~금호지구~풍암지구 구간 4.5km 우선 착공

사업비 2조1040억 잠정 확정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오는 2018년 3월 첫 삽을 뜬다. 전체 41.9km 구간 중 운천저수지~금호지구~풍암지구간 4.5km 구간이 우선 착공된다.

광주시는 20일 최근 도시철도 2호선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결과 총사업비를 2조1040억원으로 잠정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예비타당성 조사시 총사업비 1조7394억원 보다 3646억원(7.7%)이 증가했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물가 상승분(2058억원)과 땅값 상승분(244억원)이 컸고, 순수 사업물량 증가는 1344억원이다. 늘어난 사업비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지반과 매설물 조사 등을 하면서 사업비 단가 증액 등이 반영됐다.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 증액이 7%선에 그쳐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이 마무리됐을 때 정부와 하도급 되어 있는 행정청자인 총사업비 협의는 해야 한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협의를 마친 뒤 내년 초에 1단계 구간(유덕동~광주역·17.06km)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한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 승인 뒤 2010년 12월 예비 타당성 검토, 2011년 11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거쳤다. 이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총 길이 41.9km, 정거장 44곳, 땅을 알게 파는 저심도 지하방식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2014년 7월, 윤장현 시장 취임 후 ‘미래먹거리가 우선이다’며 건설 여부 재검토에 건설방식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3월부터 기본설계 용역까지 중단됐다가 재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선대 제16대 총장 후보자 강동완 교수 선출

조선대학교가 20일 실시한 제16대 총장 선거에서 강동완(61·치의학과·사진) 교수가 총장 후보자(1순위)로 뽑혔다.

〈인터뷰 2면〉

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학 해오름관에서 진행된 총장 선거에서 총 투표 수 1059표 중 344표를 얻어 최다 득표했다. 민영돈 후보(58·의학과)는 278표로 2위에 올랐다.

조선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득표 순으로 1·2위를 차지한 강동완·민영돈 후보를 무순으로 법인 이사회에 총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보자로 추천한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심의·의결을 거쳐 제16대 총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동완 후보는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뒤 조선대에서 치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조선대 치과병원장, 치과대학장, 대한스포츠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피스텔 증복 분양시기 뒤에 거물급 조폭·사채업자 있었다 ▶6면

광주, 시간 속을 걷다(36)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생자동차

신생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40g/km
※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장제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